

“텃밭 민심 선점”...대권 잠룡들 설 앞두고 잇단 광주행

정세균 총리, 이낙연·이재명·이광재·박용진 이어 10일 광주 방문 인공지능 행사 참석·언론 인터뷰...본격 대권 행보 나서나 촉각

설 명절을 앞두고 여권의 대권 잠룡들의 호남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벌써부터 텃밭인 호남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1박2일 광주 방문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음주께 광주와 전남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광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 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광주시에 주최하는 인공지능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문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정 총리는 광주시 행사에 참석하고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낙연 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이광재·박용진 의원 등의 광주 방문이 이어진 뒤여서 정 총리의 광주 행보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고 있는데, 범 친문계 인사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경우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총리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정 총리 지지자들이 3월 포럼 발족을 준비하며 지지세 결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간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을 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치적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비공개의 ‘조용한 행보’를 통해 각계 각층과 소통했다. 이 지사는 이틀 간 광주에서 5월 광주 정신의 소중함과 인연을 강조하는 등 광주 민주세력의 민

심을 잡는데 초점을 뒀다.

이낙연 대표도 설 명절 연휴 전에 광주와 전남을 다시 찾을 것으로 알려져 대선을 1년 가량 앞두고 호남 민심을 선점하려는 잠룡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에도 광주를 방문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 방문에 이어 광주의 전통적인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잡는 민생 행보를 펼쳤다. 당시 이 대표의 방문 배경에는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지지율 급락을 불러온 텃밭에서 흔들린 민

심 잡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이처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권 대권 잠룡들의 호남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설 밥상 민심’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호남 민심이 민주당 당원과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호남 민심을 선점하려는 잠룡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설 연휴 전에 호남 방문이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차기 대권에서, 특히 당내 경선에서 호남 민심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다”면서 “차기 대권 잠룡들의 직접 방문도 있지만, 외곽 조직들도 설 연휴를 앞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산회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운송 모의훈련 물류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인천공항 백신 운송 모의훈련 참관

한 치의 오차 없는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 화물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민간군경 합동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청와대는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부처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코로나 백신은 곧바로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로 운반되며, 여기서 다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접종센터로 옮겨진다. 훈련을 참관한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접종을 위해 군과 경찰을 포함한 민간의 역량을

충력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분실이나 콜드체인(냉장유통) 유지 미흡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실제 백신이 들어온 이후에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임무를 수행해 줄 것, 집중 단계에서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부처 모의훈련 과정 전반을, 김창룡 경찰청장은 냉장차량 문제 발생이나 백신 탈취 시도, 테러발생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속도...추경 제안

추경 규모 25조원 안팎 거론

3일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당정에서 맞춤형과 전 국민을 함께 데이بل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정부를 공개 압박했다. 이 대표는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설을 쇠고 나면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추경 예산안을 제안해서 3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함께 설계해 두고, 동

시 지원 여부 등 시점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와 방식 등 아이디어도 분출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5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전국민 방식으로 이뤄진 지난해 1차 지원(14조3000억원)과 선별 방식의 3차 지원(9조3000억원) 등을 참조한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4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거나, 영업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 반영해 100조원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사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에 대해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것인가”고 직격했다. 설 의원은 “서민의 파누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기본소득제’ ‘신복지제도’...이재명·이낙연 복지정책 대결

도입 가능성 여부 놓고 견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각각 ‘신복지제도’와 ‘기본소득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복지정책 대결을 펼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복지제도와 관련해 국민생활기준 2030 개념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은 건강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복지의 수준을 두텁게 강화하는 개념이다.

이 대표가 아동수당 확대(만 7~18세)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산 규모나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증세를 포함한 여러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평소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다.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에 드라이브를 걸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계층별 기본소득 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재원과 관련해선 정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며 국민적 동의 하에 탄소세, 로보세, 데이터세 같은 목적세도 신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 정책에 대한 견제 심리도 발동하는 모습이 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과 관련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기본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세계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선도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다만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함께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3일 통화에서 “다양한 계층에 소득 지원을 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이 연령대별로 이어지면 결국 기본소득과 맞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본소득은 정기성, 보편성, 안정성을 갖춰야 하는 제도여서 도입이 쉽지 않다”며 “복지 제도를 더 촘촘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